

민주, 국회의장·원내대표 자리 놓고 '경쟁 치열'

'이재명 연임' 주장 커지며 중진들 방향 선회 의장 9명·원내대표 12명 저마다 출마 저울질 당 일각 "이 대표 의중에 따라 승부 갈릴 것"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당초 당권 도전을 염두에 뒀던 중진들이 대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으로 방향을 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까지 아직 3개월 남게 남았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가 연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이 대표 연임을 언급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15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만약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연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당 대표직 연임은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

며 "지금 민주당의 당헌·당규는 만약 대권후보가 되려면 1년 전에 당 대표를 사퇴한다. 그걸 지키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도 1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흐름은 총선 전보다는 총선 후에 좀 연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대권 행보에 불리할 수 있다는 측근들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 이 대표는 일단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당내에서 '이재명 연임론'이 커지면서 애초 당권 도전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중진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윤영덕 의원. 지난 19일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공천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장의 경우 6선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맞대결 구도

에 더해, 5선 '진명 좌장' 정성호 의원과 같은 5선인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

호중 의원 등도 자천타천 거론된다. 호남 출신으로는 5선 고지에 오른 박

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 후보군만 두 자릿수에 달하고 있다.

4선에선 김민석·남인순·한정애·서영교 의원, 3선에선 강훈식·김병기·김성환·김영진·박주민·송기현·조승래·진성준 의원 등 12명 이상이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전당대회까지는 4개월 남짓 남은 만큼 이 대표의 결심과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 경선 결과 등에 따라 당 대표 후보군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이 경우 비명(비이재명)계 가운데 당권 주자급으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재 전 의원, 박용진 의원의 거취도 변수다.

당 일각에서는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후보군 '교통 정리'가 될 거란 관측과 함께,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의중, 이른바 '명심'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김진수 기자

巨野, '완력' 과시에도 무기력한 與

'의장 + 17개 상임위원장' 독식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데 이어 내친김에 입법을 위시한 정국 주도권을 모조리 틀어쥐려 하고 있다.

그동안 묵혀 둔 각종 쟁점 법안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가 하면, 다음 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17개 상임위원장 독식론'이 나오는 등 그야말로 기세가 거침이 없다.

총선 결과로 '정권 심판론'에 대한 강한 믿음이 확인된 만큼 여당의 '거야(巨野) 입법 독주' 비판 프레임은 여론을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행보다.

반면, 선거 참패에 따라 지도부가 붕괴하다시피 한 국민의힘은 당장은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물론 당 지지율까지 급전직하하면서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강공이 예상되는 '5월 임시국회' 개의 요구에 불응하자는 정도가 대응 전략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22대 국회 원(院) 구성 시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상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안 수문장' 격인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아온 것뿐 아니라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하던 관행을 모두 따르지 말자는 강경론이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전반기 때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끝내 불발되면서 당시 180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부를 꿰찬 이례적 장면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법사위원장만큼은 무조건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른 주요 상임위원장도 우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에서 '총선 민심'을 등에 업고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제2 양곡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에도 팔을 걷어붙이며 여당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장관을 지냈던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조국혁신당 등 다른 5개 야당도 이미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공조 의사를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토요일인 전날에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제2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사실상 단독 의결할 것을 두고는 '거부권 대통령'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조국 "尹, '채상병·김건희 특검'에 답해야"

"사진 찍기 위한 형식적 만남 그쳐선 안 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과 관련,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당 공보국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비록 많이 늦었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게 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여야 영수회담이 사진을 찍기 위한 형식적 만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어려운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책을 실질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아울러 내가 제안한 만남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며 회담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김진수 기자

민주당 새 사무총장 김윤덕... 정책위의장 진성준

수석사무총장 강득구·전략기획위원장 민형배·수석대변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에 친명(진이재명)계 김윤덕(전북 전주갑)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사무총장은 22대 총선을 통해 3선에 성공했고, 앞서 조직사무부총장을 지냈다. 전임 조정식 전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오르며 국회의

장직 도전 등을 이유로 지난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친명계인 김 사무총장은 19대 총선에서 전주 완산갑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21대에는 전북 전주갑에서 당선됐고, 이번 총선에서 선 지역구 사수에 성공했다.

수석사무부총장에는 강득구 의원이, 조직사무부총장에는 황명선 당선인이,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는 '영입인재 1호' 박지혜 당선인이 각각 선임됐다.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은 민주당 연구위원장을 맡는다. 정책위의장 자리에는 22대 국회에서 3선이 되는 진성준 의원이 임명됐다. 민형배 의원이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민형배 의원은 전략기획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박성준 의원이 수석대변인을, 한민수·황정아 당선인은 대변인을 맡았고, 김정호 의원은 교육연수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국민소통위원장에 최민희 당선인, 대외협력위원장에 박해철 당선인, 법률위원장에 박규택·이윤우 당선인, 대표 정부조정실장에 김우영 당선인 등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당선인들도 주요 직책을 맡았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원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